

STYLISH LIVING

LemonTree

세계의 로컬 공예 GLOCAL RUSH

전지현 드레스 디자인한 제니 팩햄의
런던 패션너를 하우스

배우 심혜진의
스타일리시 리조트 오픈기

에디터의 좌충우돌
핸드메이드 카페 제작기

한국어 되는 해외직구 사이트

디자이너 취향 담은 핸드메이드 주얼리
아직 더 놀고 싶은
30대를 위한 밤 놀이터

사이 누나 박재은의
제주도 낭만 맛집
세계 최대 용량
냉장고 3대 일렬비교
사판 제로로,
아탈리안 코스 레시피

COVER STORY
레몬트리 뉴 아이콘
Around Table

창간 11주년 기념 선물 이벤트
독자에게 모두 드립니다
지금 당장 88
갖고 싶은 물건

작은 땅 작은 것들의
리얼 미적서
서울, 작은 땅에 작은 것들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신기한 작은 집 통인동 안경하 씨의 16평 주택

작은 규모의 한옥과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촌의 통인동. 조각가인 안경하(38세) 씨는 지난 12월 20년 된 15평짜리 단층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5층 높이의 집을 새로 지었다. “집과 작업실을 같이 쓰다 보니 공간이 너무 협소해 증축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된 집이라 고치는 견적에 원만한 집을 짓는 비용과 맞먹더라고요. 이참에 아예 열리 내보이고 광생 살 짖을 자제하자고 결심했죠.”

3평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각 층의 평수가 좁아지는 특이한 구조다. 주택들이 밀집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인접 대지에 일조권을 확보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질수록 허용되는 바닥 면적이 줄어든다. 16평 크기의 1층에 비해 최고층인 5층의 면적이 고작 4평 남짓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어떻게 좁은 공간에 굽이凸 벽을 세워 방을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활 공간을 층별로 나눠 하나의 층이 곧 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죠.”

그녀가 1·2층을 작업실로, 3층을 리빙룸, 4층을 침실, 5층을 서재로 설계한 이유다. “작업 공간과 생활공간이 한 층에 있었을 때, 손님들에게 사적인 공간이 너무 가깝 없이 오픈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층별로 생활 영역을 구분해내니까 이전보다 사생활 보호가 확실히 됐어요.” 물론 주택가 협소한 공간에 집을 지으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다. “주변이 빙 둘러 있는 교로와 달리, 건축자제율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물류비용이 예산보다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오(吳) 주민의 민원도 있겠죠.” 그녀의 경험담에 따르면 작은 막·작은 짐이에도 집을 짓는 일 자체가 비용이나 규제 면에서 걸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 한다. 따라서 딱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리한 헌디감이 저 집의 특색으로 승화시키고 나니, 맞춤형 내 집으로 오롯이 원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살아온 안경하 씨의 자랑이다.





1 복도와 층고 긴 주방이 거실로 연결되는 구조의 슬립 리프팅, 수납과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모든 가전은 벌트인으로 사용했다. 2, 5 층거 공간인 3, 4, 5층은 실내에 있는 계단을 통해 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데 반해 작업실이 있는 2층에서 라인볼인 3층으로 가려면 반드시 외부 계단을なければならない.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은 확실히 분리해 사용할 보호장을 만든 것이다.

3 나지막한 경사가 많은 풀대에 나홀로 우뚝 솟은 칩이 되자 암기 위해 각 층고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 5층인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크기는 주변 3층집 정도의 높이다.

4 작은 일상의 기본은 단출한 세간이다. 자질구레한 소품 하나 없이 심플한 인테리어가 침을 짙은 넓어 보이게 한다.



1
F



3
F

3F



1

1 3층의 디ining 테이블을 제외하고,
이 합판 가구가 따로 없다. 품은 집의 수납
문제를 생각해서 예전에 집을 지을 때
풀主义思想가를 설득해하고, 빌트인 시트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2 조각 사업을 하거나
완성된 작품을 보관·전시하는 2층 작업실
바닥은 주거 공간과 달리 나무가 아닌
에폭시로 마감했다.



2

2F

“작은 집은 콤팩트한 규모만큼 관리의 부담도 최소화된 집이에요. 감당할 만한 규모의 집에서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도심 속 작은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5F



4F



©문정식

1,2 위로 갈수록 점점 줄어지는 구조로, 폭대기 층인 5층은 4평 날개와 직각 밤 키로 만들어졌다. 디락 같은 허위기며 애달한 공간으로 주인 안경화 씨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3 형태 원통으로 난 테라스 공간. 이 공간 중이 있는 마당이 있는 대신 중이다 작은 대나무 한줄이 기드님의 재미를 누릴 수 있게 됐다.

4 화장실을 제외하고 이 집에는 빙아 하나도 없다. 힘남과 옥살이 있는 4층 또한 마찬가지다. 5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기준으로 한쪽이 활동 공간, 반대편이 육실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PLANNING NOTE

면적 대지 약 31평에 건물 면적은 16평
(총별 면적은 층 6평, 2층 17평, 3층 16평,
4층 9평, 5층 4평)

비용 대지 3억원만원(2004년 기준),
건축비 4억8천만원 선

건축 기간 2011년 3~11월 약 9개월 소요

설계 유주현 건축사무소(jyvana.com)